



# 수산업의 6차 산업화와 그 추진에 대하여

〈외지에서, 편집실〉

## 1. 머리말

현재 일본의 농림어업은 고령화나 농산어촌의 과소화, 농수산물 가격의 침체 등에 의한 소득감소 등 여러가지 문제에 직면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을 타파하기 위한 시책으로서 떠오른 것이 「6차 산업화」이다. 수산분야에 있어서도 「자원관리·어업소득 보상대책」과 함께 「수산업의 6차 산업화」를 2011년도부터 본격적으로 추진해 가고 있다.

## 2. 「수산물을 잡아 판다」는 것의 중요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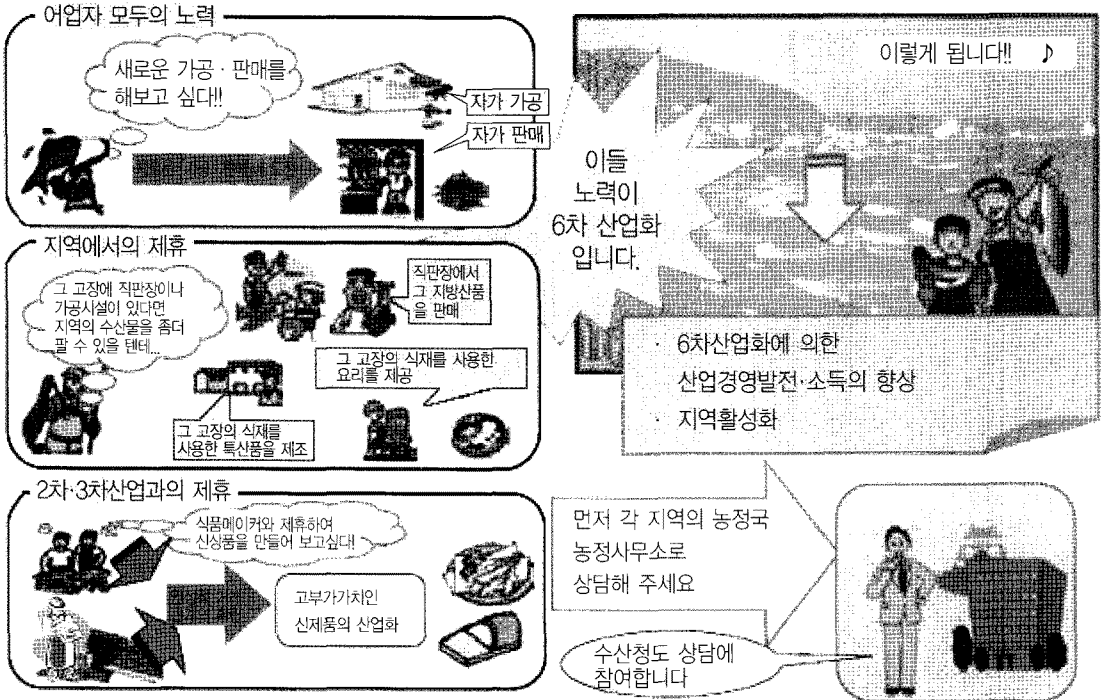
6차 산업이란 「1차 산업×2차 산업×3차 산업」이다. 「6차 산업화」의 의미는 ① 1차 산업인 농림어업에 종사하는 자가 2차 산업인 제조·가공업, 거기에 3차 산업인 유통·소매업 등에도 자발적으로 일체화하는 것, ② 1차 산업과 2차 산업, 3차 산업이 제휴·융합해 새로운 산업을 창출하는 것이다. 6차 산업화를 통해서 지역의 농림 수산물에 새로운 부가가치를 산출하거나 신규 비즈니스를 창출함으로써 농림어업자의 소득향상이 그 최대의 목적이다.

예를 들면, 어업자 스스로가 어획한 수산물을 활용해 어가(漁家) 레스토랑을 경영하거나 어협과 수산가공업자가 협력하여 폐기되고 있던 규격 외의 수산물을 활용하여 신제품을 개발·판매하는 것 등이 바로 6차 산업화의 사례가 된다(그림 1). 새로운 도전으로서 지역 수산물의 수출에 이바지하자라고 하는 것도 6차 산업화라고 할 수 있다.

벌써 이러한 6차 산업화에 적극적으로 임하고 있는 어업자·어협도 있지만, 앞서 서술한 바와 같이 어려운 정세 가운데 보다 많은 어업자들이 「수산물을 잡는다」라는 것에서 한발 앞서 「수산물을 잡아 판다」로 인식이 전환되어 소득증가



수산업의 6차 산업화 노력을 응원합니다!!



〈그림 1〉 수산업의 6차 산업화 개요

로 이어지기를 바라는 바이다. 이러한 것이 지역 전체의 활성화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3. 추진을 위한 시책

① 6차 산업화법

6차 산업화를 본격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정부는 여러 가지 시책을 전개하고 있다. 그 큰 축으로써 작년 가을 입

시 국회에서 「6차 산업화법」(정식명칭은 「지역자원을 활용한 농림어업자 등에 의한 신사업 창출 및 지역의 농수산물 이용 촉진에 관한 법률」)이 성립되었다.

이 법률의 가장 큰 목적은 6차 산업화를 추진함으로써 농림어업의 진흥을 도모함과 동시에 식량 자급율의 향상에도 연결하는 것이다.

법률의 최대 포인트는 농림어업자 스스로가 생산·가공·판매에 총괄적으로 임하는 6차 산업화를 위한 사업계획



법률에 의한 지원~6차산업화법, 농상공 등 제후촉진법

	6차산업화법(2010년 12월 공포)	농상공 등 제후촉진법(2008년 5월 공포)
포인트	① 「농림어업의 진흥 및 농산어촌의 활성화」 등이 목적 ② 농림어업자 등에 의한 대처가 대상 ③ 농지의 전용수속 간소화 등 농림어업자를 위한 지원 조치	① 농림어업자와 중소기업자의 「생방의 경영개선」이 목적 ② 농림어업자와 중소기업자가 제후하여 행하는 대처가 대상
목적	농림어업자 등에 의한 사업의 다각화 및 고도화, 새로운 사업의 창출 등에 관한 시책 및 지역의 농수산물의 이용촉진에 관한 시책을 종합적으로 추진함에 따라 농림어업 등의 진흥, 농산어촌 기타 지역의 활성화 등을 도모함과 동시에 식량자급율의 향상 등에 기여	중소기업자와 농림어업자가 유기적으로 제후하고 각각의 경영자원을 유효하게 활용하여 행하는 사업활동 등을 촉진함으로써 중소기업의 경영 향상 및 농림어업경영의 개선을 도모하고 보다나은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
주체	(종합화 사업계획) * 농림어업자 등 (가공·유통업자 등을 「촉진사업자」로 하여 자리매김하는 것도 가능)	(농상공 등 제후사업계획) * 중소기업자와 농림어업자가 제후
지원조치	농림어업자 등의 가공 또는 판매를 지원하기 위해 ① 연안어업개선 자금조성법 등의 특례 ② 농지법의 특례(농지전용수속의 간소화) ③ 아채 생산출하안정법의 특례(릴레이 출하지원) 등을 조치	농림어업자 및 중소기업자를 지원하기 위해 ① (주)일본정책금융공고(公庫)에 의한 저리 융자 ② 중소기업 신용보험법의 특례 (보증한도액의 확대 등) ③ 연안어업개선자금조성법 등의 특례 등을 조치

(그림 2) 6차 산업화법

을 세워 농림수산부 장관의 승인을 받으면 각종 지원 조치의 대상이 된다는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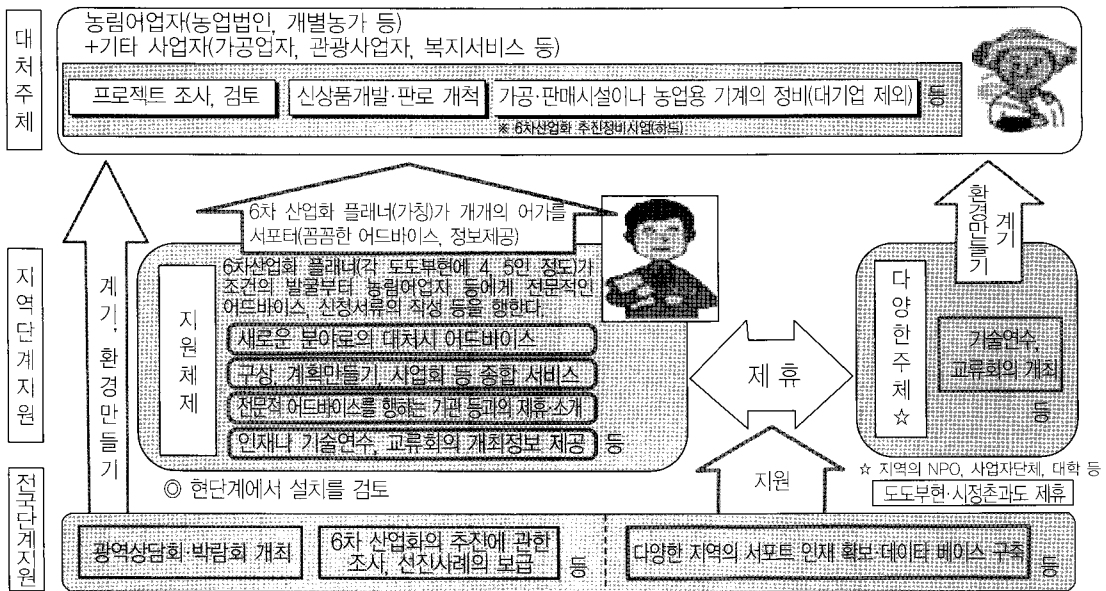
예를 들면 어업자·어협이 지역에서 어획한 수산물을 가공해 신상품으로 개발, 판매하는 계획을 세운다. 그 계획에 대해서 심사를 거쳐 장관 승인을 받는다. 승인을 받으면 원료가 되는 수산물의 어획에 필요한 기기 등을 구입하는 경우 그 자금에 대하여 무이자 연안어업 개선자금을 통상보다 긴 상환기간으로 빌릴 수 있게 된다(그림 2).

또 하나의 포인트는 지역의 농수산물 이용의 촉진, 즉

지산지소(地産地消)의 추진을 위해 국가가 그 기본방침을 정하고, 지자체도 지산지소 촉진을 위한 계획을 책정하여 지역 전체에서 지역의 수산물을 활용해 나가는 것이다.

종래부터 있는 「농상공 등 제후촉진법」에서도 농수산물을 활용한 신제품의 개발·판매를 지원해 왔다. 다만, 농상공 등 제후촉진법에서는 농림어업자와 중소기업자와의 제후가 조건이었다. 이에 대해 「6차 산업화법」에서는 농림어업자 혼자만으로도 지원 대상이 된다는 점이 큰 차이이다.

〈미래를 개척하는 6차산업창출종합대책중(기간) 농림어업자의 가공·판매 촉진〉



〈그림 3〉 6차산업 종합추진사업

#### 4. 추진을 위한 시책

##### ② 2011년도 예산

작년 12월에 2011년도 농림수산업예산이 개산 결정되었다. 이 안에서 「미래를 개척하는 6차산업창출종합대책」으로서 약 130억엔, 그 중에서 농림어업자의 가공·판매를 촉진하기 위한 사업으로써 약 33억엔의 예산을 계상하고 있다.

어업자들이 스스로 신상품을 개발해 판매하는 것은 물론 간단한 것은 아니며 전문가의 어드바이스 등이 필요한 경우도 많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새로운 대책으로서 「6차산업 종합추진사업」을 계상해 상품개발 등에 대한 다양한 어드바이스를 받게 되는 제도와 상담회 등의 정보를 제공하는 구조 등을 만들 예정이다〈그림 3〉.

이러한 예산 관계의 사업 일부에 대해서는 먼저 서술한 6차 산업화법에 계획을 승인을 받으면 보조율이 통상보다 상향되는 등의 메리트를 마련하였다.

수산청의 독자적인 예산으로서는 「산지 수산업 강화

지원사업」이 있다(「강한 수산업 만들기 교부금」의 사업, 예산액 약 32억엔). 이것은 어촌지역 전체 관계자가 협력해 6차 산업화 등에 임하는 경우에 필요한 시설의 정비 등에 관계되는 비용을 보조하는 것이다(그림 4). 지역이 일체가 되어 현지의 수산물을 활용하는 아이디어를 실현해 가자고 하는 적극적인 활동을 수산청에서도 지원하려고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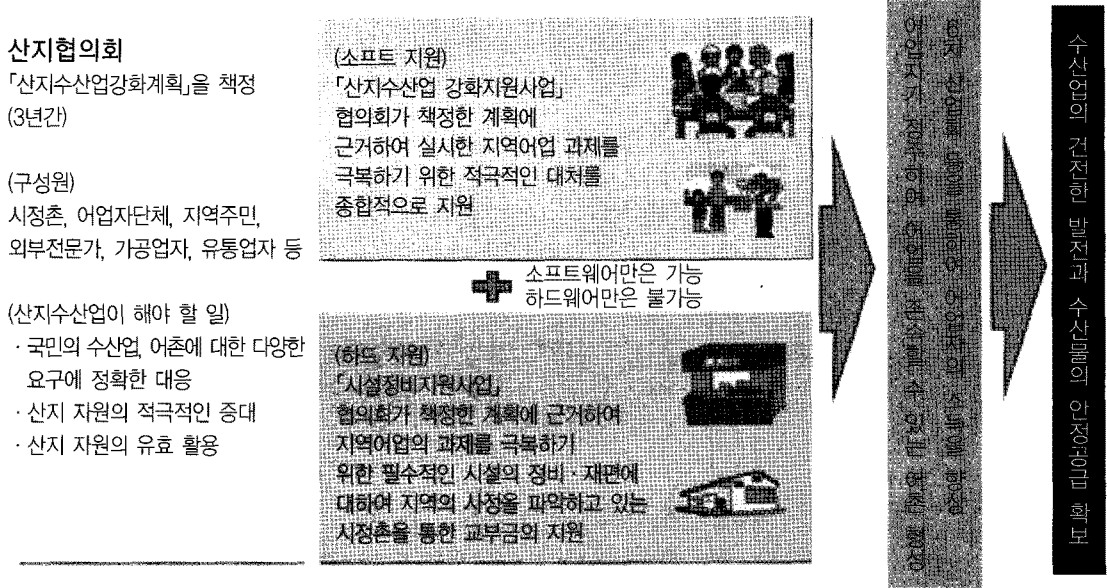
#### 5. 농림수산성·수산청의 추진 체제

6차 산업화는 농림수산행정의 큰 축의 하나이며 농림수산성 전체가 추진해 나아가고 있다. 6차 산업화의 정리를 담당하고 있는 종합식료국을 비롯한 각 국과 수산청이나 임야청이 제휴하고, 또 다른 부처와도 협력하여 여러 가지 노력을 응원하고자 한다.

농림수산성에서는 지역민의 다양한 질문이나 상담에 대응하는 「윈스톱 창구」를 각지방 농정국에 마련했다.

어업분야에서는 농상공 제휴 등의 제도를 활용하고

<미래를 개척하는 6차산업창출종합대책중(관련) 품목·산지·후계자 대책추진>



<그림 4> 산지 수산업 강화지원사업

있는 어협이나 수산가공업자들도 있지만, 한편으로는 아직 지역에서도 그 매력을 알아채지 못한 미이용의 수산자원 등, 커다란 가능성을 숨긴 소재가 많이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그래서 수산청에서도 향후 한층 더 적극적으로 6차 산업화로 이어지는 사례를 지원하고자 「수산청 6차산업화 추진팀」을 만들어 활동을 시작했다. 청내의 관계되는 과의 담당자나 유지 등 20여명이 한팀이 되어 법률이나 예산의 홍보를 전국 각지에서 실시하고 것 외에 필요한 시책이 무엇인지에 대해 논의하고 있다.

**6. 맺음말~  
바닷가의 의지가 지역을 바꾼다!**

6차 산업화의 중요성을 중심으로 법률이나 예산 등에 대해서 소개해 왔다. 그러나 6차 산업화의 추진에서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어업자와 지역주민의 열의와 행동이

다. 정부가 아무리 노력해도 현장의 어업자의 의지가 없다면 당연히 실현될 수 없다.

국내에서는 수산물의 소비량이 줄어들고 있지만, 소비자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결코 수산물이 싫어진 것이 아니라고 한다. 외식에 대한 수요도 있고, 조리를 간단하게 할 수 있으면 식탁에 올리고 싶다고 생각하는 소비자도 많이 있다.

연구하는 만큼 기회는 많이 있는 것이 수산업의 6차 산업화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어업자 스스로 어획한 수산물을 스스로 혹은 지역의 가공업자와 협력하여 제대로 팔아 보자라는 꿈과 희망을 응원하고자 한다. ▲